

보도일시	2022. 12. 1(목) 10:00	배포일시	2022. 12. 1(목) 10:00
담당부서	총무인사처 노사복지부	책임자	부장 강갑철(061-338-6011)
		담당자	차장 정보현(061-338-2016)

농어촌공사 노동이사제 도입, 현광수 이사 임명 경영진 주체로 이사회 참여, 현장 목소리 경영에 반영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근로자의 경영 참여와 노사 상생경영의 실현을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초대 노동이사로 현광수 이사를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현광수 이사는 1965년생으로 공사에 32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 경기지역본부 안성지사에 근무하고 있다. 공사 노동조합 경기지역의 장, 비상근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노동이사로써 임기는 2022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2년이다.

노동이사는 공사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노사상생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특히 경영진의 한 주체로서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도록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한다.

공사는 2020년부터 이사회 전 단계 의결기구인 경영위원회에 노동조합 간부가 참석하여 발언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경영위원회 노동조합 참관제’를 시행하는 등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첫 노동이사를 임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광수 신임 노동이사는 “공사의 첫 노동이사로써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근로자와 경영진 간 협력과 상생을 이끌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공사의 투명경영, 책임경영, 노사상생경영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